경복궁 흥례문 복원 공사 총괄

김광욱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

“ 경복궁 복원은 곧 민족 정기 되살리기지요 ”

일제 조선총독부 건물이 헐린 자리에 경복궁 흥례문 85년 만에 권역이 옛 위용 그대로 되살아난다. 문화재청이 1990년부터 시작한 ‘경복궁 복원 정비 사업’의 3단계 공사인 흥례문 권역 복원 사업이 착공된 지 5년여 만에 주요 전각 및 관련 시설들을 복원, 이달 26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는 것.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으로 들어서서 보이는 첫 번째 궐문인 흥례문 권역 복원 공사를 총지휘하고 있는 김광욱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는 이번 공사와 같은 역사 유물 복원 공사를 “역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해외에서 10여 년 간 호텔, 아파트 등 굵직굵직한 건축 공사 현장을 지휘한 이후에는 줄곧 본사에서 중역으로 몸담아 온 김 상무는 흥례문 복원 사업 초기에는 고건축에 문외한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학생의 마음으로 역사를 찾아 나오는” 길을 걸은 덕택에 지금은 전문가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

조선 태조 때 지어진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전소돼 고종 2년 중건되었다가 고종 13년 다시 화재로 소실되었고 고종 25년 재차 중건하였다. 이후 일제가 흥례문 및 주변 행각을 헐고 그 자리에 조선총독부를 지어 왕조의 맥이 끊기게 되었다.

김광욱 상무는 “조선의 법궁으로 가장 장엄하게 지어진 궁궐이면서도 조선 후기와 일제 강점을 거치면서 슬픈 역사를 고스란히 겪은 경복궁 복원은 복원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며 “경복궁 복원은 곧 민족의 정기를 되살리는 작업”이라고 말한다. 문화재 복원 공사는 단순 기능공이 아닌 인간문화재급의 기술자가 투입되어야 한다. 현대건설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 복원 기술자들을 통해 부문별로 국내 최고 수준의 문화재 기술자들을 확보했다. 그 결과 인간 문화재인 신응수 도편수가 목조 건물을 맡았고 와공, 단청, 미장 등 국내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문화재 기술자들이 손을 보탰다. 김 상무는 “우리나라 고건축의 특징이 자연스러운 데 있는 만큼 거의 모든 건물을 국내산 소나무로 복원하고 나뭇결이 세월을 머금고 살아있도록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100년 뒤에 우리의 후손이 복원된 경복궁을 통해 선조의 숨결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사업 과정에서 시공상의 어려움보다 자료 수집에 많은 애로를 겪었다. 역사적 고증이 완벽하지 못한 탓에 설계대로 시공하다보면 난관에 부딪히기 일쑤였다는 것이다. 문화재 복원 공사는 원래 지반에 있는 유구(遺構)를 발굴해 그 발굴 조사를 토대로 복원하는 것이 정석이다. 그러나 흥례문 권역은 일제 시대 조선총독부 건물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유구가 상실되어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사전 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나마 아주 약간 발견된 어구 및 담장지 유구 등을 토대로 조선고적도보와 북궐 도형을 참조하고 이를 다시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얻어 공사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는 문화재 복원은 예산 확보보다 철저한 고증을 위한 문헌 등 자료 발굴이 더 관건이라고 말한다.

준공식을 앞두고 “어려운 과정을 거친 만큼 완벽을 기했다고 자부한다”는 김광욱 상무는 “문화재 복원 공사는 특히 사명감을 갖고 임해야 하는 공사이며 이런 의미에서 시공업체가 착공 전단계인 고증 작업을 하느라 지나치게 공기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 중인 경복궁 복원 사업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 동안 1,789억원이 투입되는 대공사이다. 하지만 흥례문 권역 등의 지하 유구가 총독부 청사 건물을 지을 때 모두 파헤쳐져 완전히 복구할 수 없는 등 경복궁이 완전한 제 모습을 되찾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정숙진 · 기자